

# 너도나도 情 한 손가락...이웃사랑에 배부른다



김주술(64)씨가 기부금이 든 돼지저금통을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북구, 40년 구두장인 부부 13년간 33번째 기부 '감동' 광산구 익명으로 과일 보내 '얼굴없는 천사들' 주위 훈훈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벌어들인 수익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들 덕에 이번 추석도 정이 넘치는 명절이 될 것 같아요."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광주 곳곳에서 숨은 독지가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40년 구두장인의 14년차 33번째 기부를 비롯해 얼굴없는 천사들이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주술(64)씨. 김씨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40년째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벌이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다. 그런 그가 매일 구두를 수선하고 번돈의 10%를 지난 2005년부터 돼지저금통에 모으고 있다. 작업장 한켠에 놓여 있는 이 빨간 저금통은 바로 자신이 아닌 남들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이다. 시기와 관계없이 김씨는 돼지저금통이 목적해졌다고 판단될 때마다 선행을 베풀어오고 있다. 햇수로 13년. 기탁 횟수만도 33회에 이른다. 김씨는 북구 북지와 직원들에게 '구두뒤편 기부천사'로 불린다. 올 추석에도 김씨의 기부는 이어졌다. 김씨는 지난 5일 북구청 북지과에 연락해 추석을 앞두고 기부 의사를 밝혔... 북지와 직원들이 구두방으로 찾아가자 김씨는 환하게

웃어보이며 연제나처럼 기부금이 든 목직한 돼지저금통을 건넸다. 감사인사를 전하고 뒤돌아서는 북지와 직원들을 다시 부른 김씨는 호주머니에서 2만원을 꺼내 돼지저금통에 쾌척했다. 북구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아직 저금통이 꽉 차지 않아 조금 기다렸다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추석을 앞두고 기부하자고 우겨 서둘렀다. 꼭 좋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부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가벼운 저금통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2만원을 더 넣어 주셨다"며 "평소 김씨는 돼지저금통 기부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 구두를 제작해주는 등 선행을 실천하고 계신다. 김씨와 같은 분들 덕분에 올 추석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얼굴없는 독지가들의 선행도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9일 새벽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익명의 기부자가 사과 50상자를 하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두고 갔다고 밝혔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11년 설을 앞두고 쌀 35포대(20kg 기준)를 주민센터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추석과 설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쌀과 사과·포도·배 등을 보내고 있다. 그의 선행은 올해로 9년째다. 지난 1일 동구에서도 익명의 기부자가 백미 20kg들이 50포를 전달했다. 동구 관계자는 "가을 장마가 쏟아지기 전에 꼭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가 감동받았다"며 "기부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꼭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 4개월 연속 1위 전국 50% 이상 지지율 '유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4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렸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최근 민선 3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8월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 교육감은 51.5%의 지지율을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설동호 대전교육감(42.9%)이 차지했다. 장 교육감의 지지율은 전월(50.3%)에 비해 1.2%p 오른 것이며, 전국 교육감 중 유일하게 50% 이상 지지율을 유지했다. 장 교육감은 취임 후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5월 조사에서 1위를 되찾은 이래 4개월 연속 가장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장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혁신 교육정책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8월 정례조사는 8월24일부터 30일까지 7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7천명(시·도별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2%이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해 30대 사형 구형

검찰이 새벽에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정모(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경 B씨의 약혼녀인 C(42)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가 성폭행을 시도할 때 C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하지만 정씨는 1층으로 내려가 C씨를 승강기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온 후 C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문제 유출은 단순 실수...징계 부당”

“해임 등 과해”...고려교, 재심의 정식 요청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상위권 특별관리 등의 논란을 낳은 광주 고려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학교관리자 파면·해임 등의 징계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재심을 정식 요청했다. 고려교 문형수 교장은 10일 “시험문제 유출과 상위권 학생 특별관리에 대한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가 공정성을 잃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 이날 오전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우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재심을 통해 학교와 교사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2017년 진행된 광주지역 30여개 고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금품 수수와 성적조작, 학생생활기록부 부당 수정 등이 드러나 연루 교사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S여고를 제외한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평

가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비교근거로 제시했다. 학교 측은 특히 “감사결과 어디에도 상위권을 위한 성적조작의 근거는 없으며 문제유출은 교사의 단순 실수였다”며 “교육청에서도 ‘성적조작은 없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고3은 2009교육과정이라 수준별 이동수업이 합법적이고 교육부 권장사항이며, 전국 23.3%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우열반이 아니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위권만을 위한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점은 수시, 정시 입시 결과가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조조 수학교실과 학습도우미, 멘토·멘티 활동 등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그러면서 “교육과정 운영, 평가관리, 방과후 학교, 기숙사 운영, 학교장 추천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후속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 규정에 따라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 오는 11월10일 이내에 재심의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학사행정 부실 등의 논란을 낳고 있는 광주 고려교가 교육청 감사 결과에 반발, 근조 현수막을 내린 모습.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교육청은 7월 8일부터 한달 간 고려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시험문제 출제, 우열반과 기숙사 운영, 과목선택 제한, 대입학교장 추천 등에서 상위권 학생에게 일종의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교장(파면)·교감(해임) 등 7명 중징계, 교사 48명 징계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 중 30여 명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다. 뉴스=송창환기자 goodchang@newsis.com

## 이들 만에 멈춘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에 설치된 해상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 지 이들 만에 운행 도중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20분께 목포 북항-고하도를 운행하는 해상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케이블카에는 1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운영사 측은 비상시스템을 가동시켜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 이후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2시간10분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멈춘 사고는 태풍 등에 대비해 케이블카 안전센서 감도를 높여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백민정기자 mspark214@srb.co.kr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x100 - B형 : 83x50 - C형 : 126x50

SK VIEW SK공인중개사 H. 010-5099-2400 H. 010-9466-3400 농성동 SK VIEW 매매, 전·월세 상/담/환/영 물건 다량 보유 9월 16일 입주자 농성동 SK부 단지내 상가 107호 입점 H. 010-8524-3150 농성 탐> 공인중개사

사랑방 부동산 MAP+ (맵플러스) OPEN 381건 이전 지도검색으로 내집마련 할지! 아파트·오피스텔 매물 검색, 가건변동률 참고, 초등학교 배정구역 확인, 중개사무소 위치, 단지별 시세 리뷰 제공

광주 정보량 1위 상가·부동산광고 멀리서 찾지말고 지금 바로 여기서! 압도적인 정보량, 관련 면 단독 게재, 신문 게재시 인터넷+모바일 동시게재 상가·부동산 광고는 역시 사랑방

봉선동 상가 임대·분양 KJ빌딩 신규 파격 임대·분양 지하 체육관 / 헬스클럽 스크린 골프 / 기타 업종 1층 모든 업종 가능 2층 전문병원 / 학원 (병원 상담시 특별혜택) 3~6층 병원 / 타업종 가능 상담 문의 H. 010-6705-6267 H. 010-3632-2401

광추최초 동영상서비스 아파트 분양정보 찾을 땐 사랑방 광주 최초! 단지 규모와 주변 환경 등 놓쳐서는 안될 주요 정보를 영상 리포트로 확인해 보세요. 국내 최초! 교통, 생활인프라, 교육환경을 360° 드론영상으로 생생하게 경험해보세요. 생생한 현장감! 모델하우스 방문 없이 가실부터 주방까지 집안 곳곳을 생동감 있게 경험해보세요.